

作 品 研 究

—現代 水墨畫의 韻文的 表現을 中心으로—

徐 世 錦
東洋畫科 教授

目 次

- | | |
|---------------------|----------------|
| I. 序 | IV. 空間의 응축과 확산 |
| II. 대상의 해체와 재구성 | V. 結 |
| III. 記號的 형태와 筆墨의 詩化 | |

라는 두 이미지로 형상화려 한 것이다..

I. 序

며의 상징성과 정신성에 의한 寫意的 추상경향을 지향하는 逸品畫는 전통적으로 僅細한 形似를 초월하여 대상의 특징을 해체, 그 본질적 요소만을 남기고 변형시켜 가는 작품 경향이다.

또한 詩的 韵律性을 중히 함으로서 며의 높고 낮고 급하고 완만한 交叉와 變幻에 의해 구성적 자율성과 조화를 득함으로서 詩, 書, 畫, 樂의一致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수록 변환과 절조에 의한 감정이 입과 생체적 생명력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는 것인데, 본고는 주로 수목에 의한 「人間」과 「群舞」연작으로서 이러한 일품화의 정신적軌에 상응하는 現代的 繪畫의 한 가능성을 탐구한 것이다.

II. 며에 의한 대상의 해체와 재구성

水墨畫의 특징은 대상의 윤곽적 사실성을 설명적으로 묘사하는데 있지 않다. 대상의 内在的 性情을 파악, 그 本質을 상징적으로 압축시켜 구현하는데 있고 따라서 그 美的 가치는 늘 여하히 짚어 그렸는가에 우선하여 대상의 고유한 특징과 생명력을 어떻게 表出해 내느냐에 있는 것이다.

본고 역시 「인간」과 「춤」이라는 주제를 주로 일회적 며의 농담변환에 의해 생명력과 울동이

III. 記號的 형태와 筆墨의 韵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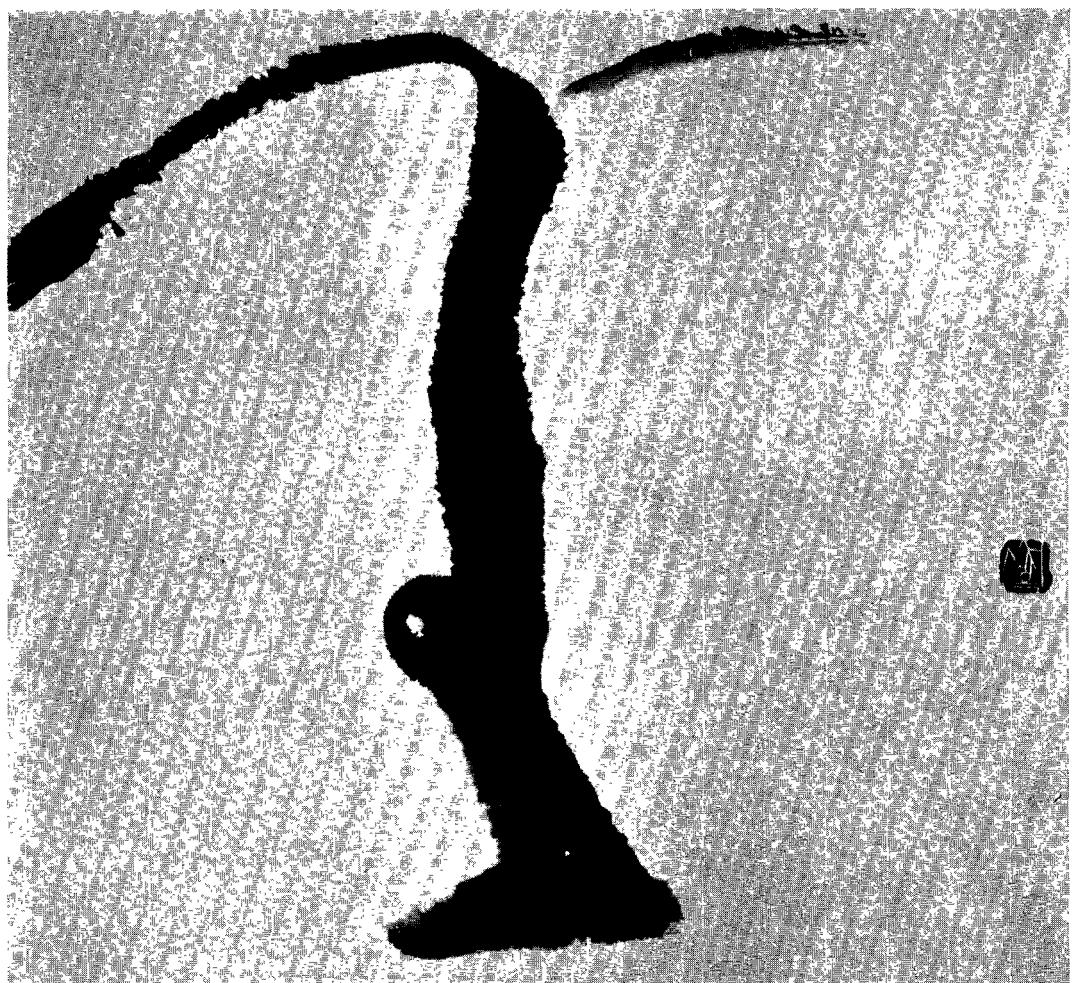
이러한 극도로 압축 결제된 韵文性의 회화는 대상의 본질과 그 표출방법의 始終을 장악하고 있지 않는 한 득의의 필치구사가 어렵다. 순간적으로 대상의 간결 극명한 본질적 정수를 표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형상은 추상성향을 띠게 되는 것이며 오직 며의 농담과 필세의 역양에 의한 동어 반복적 패턴으로서 詩的 운율성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IV. 공간의 응축과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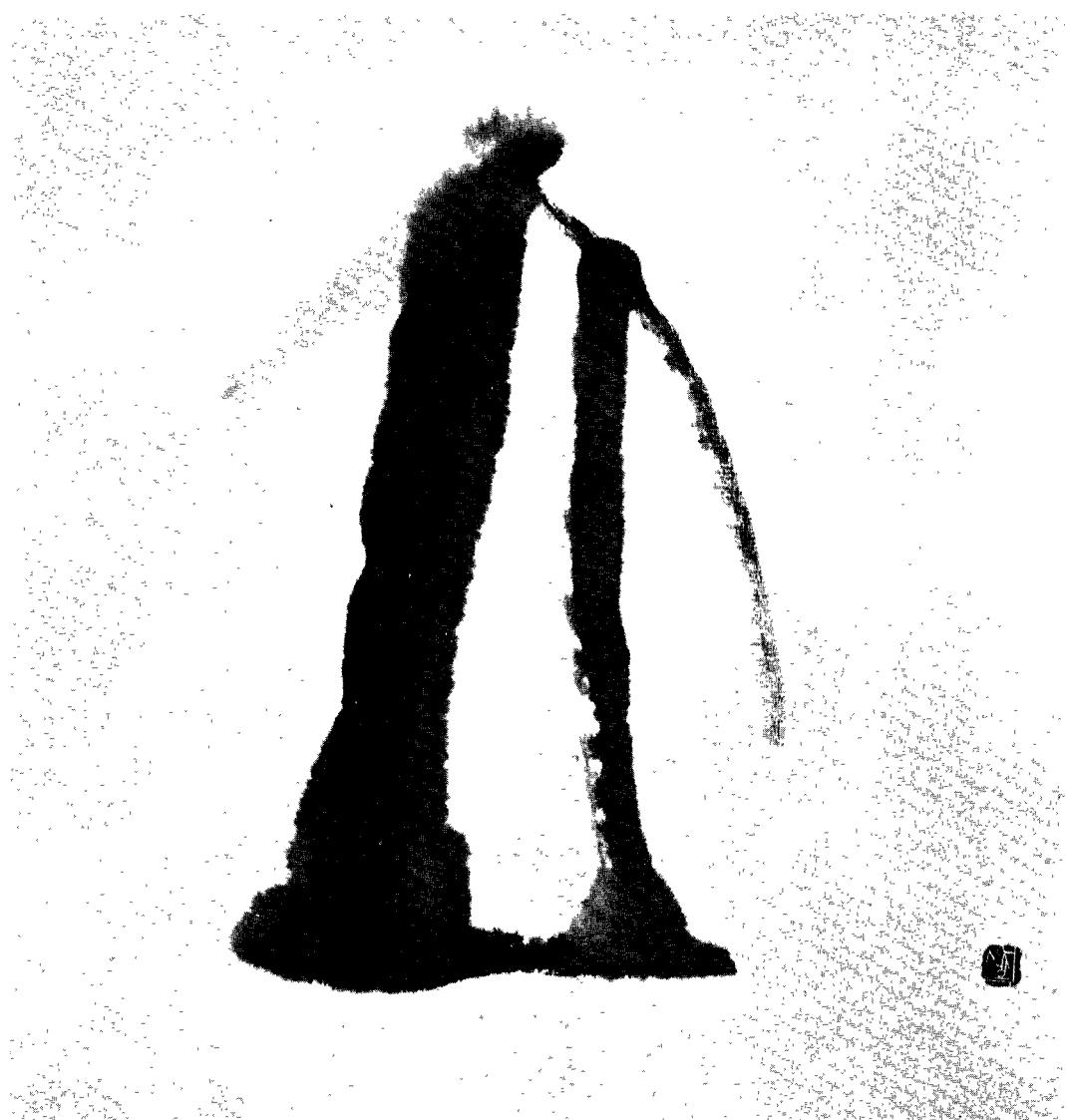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추상성향에 의해 규격적 視方式이나 公理的 布置 원리로 부터 벗어나서 대상과自我의 一元의 場을 폐하게 됨으로 해서 공간개념의 새로운 모색이 또한 가능해진다. 순간순간 생성 소멸하는 선묘의 리듬과 함께 공간 또한 자의적으로 확산, 응축되는 등글고 부드러운 여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V. 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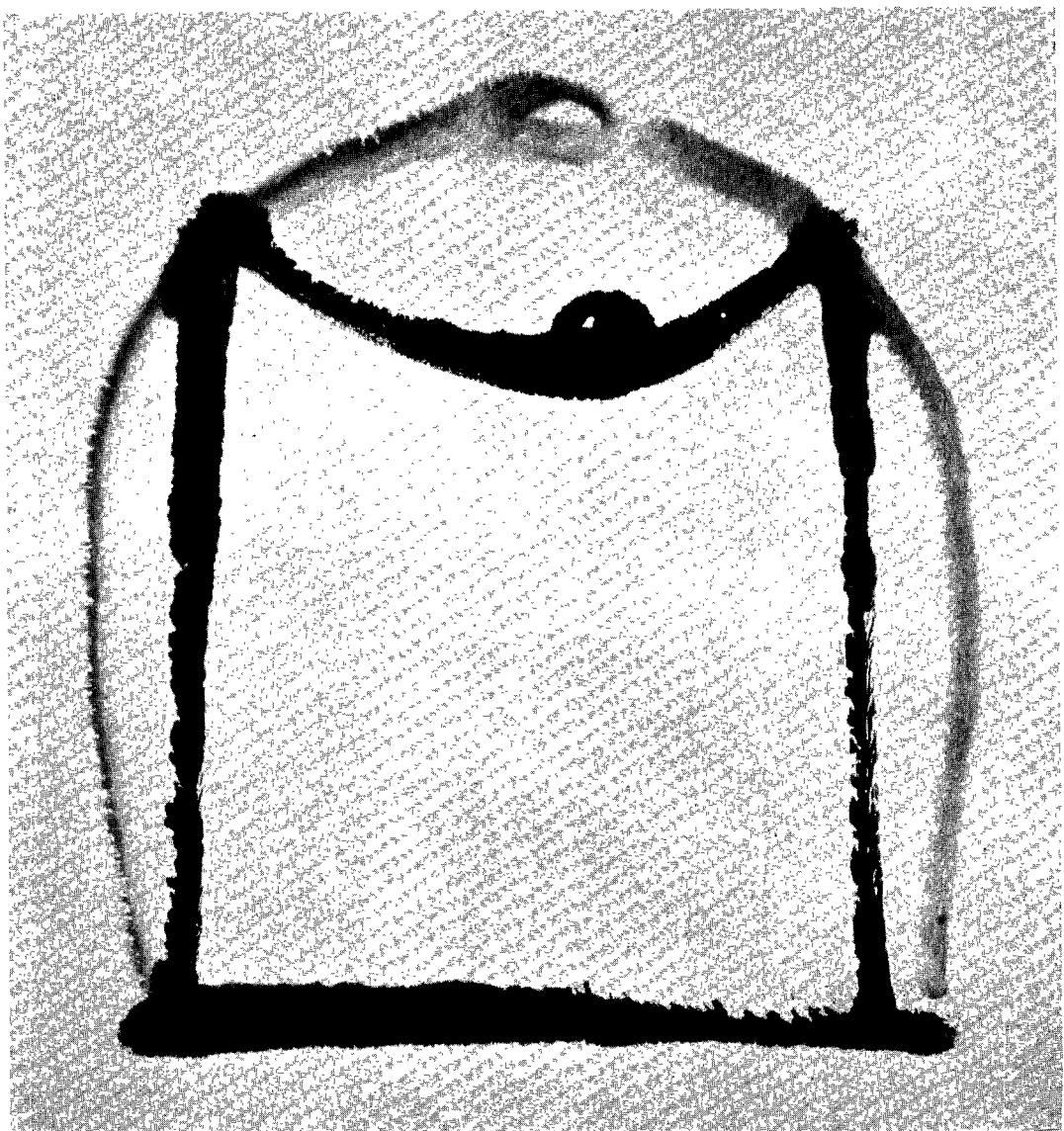
며의 정신성과 상징성 여백의 독특한 미학과 더불어 서구의 조형 논리와 다른 현대회화로서의 수목화의 한 가능성을 모색 시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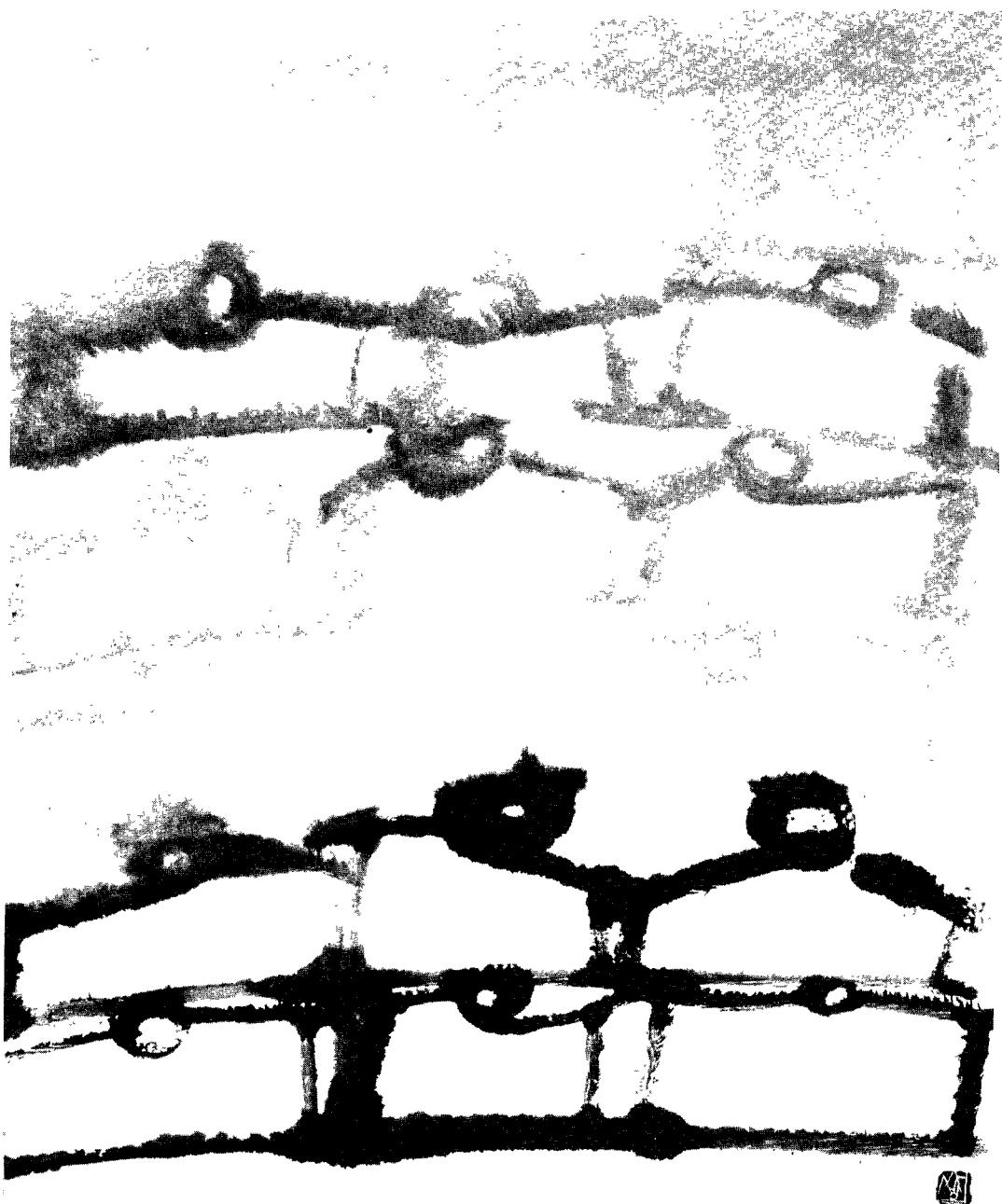
물구나무 선 사람<수목, 67cm×60cm> 1987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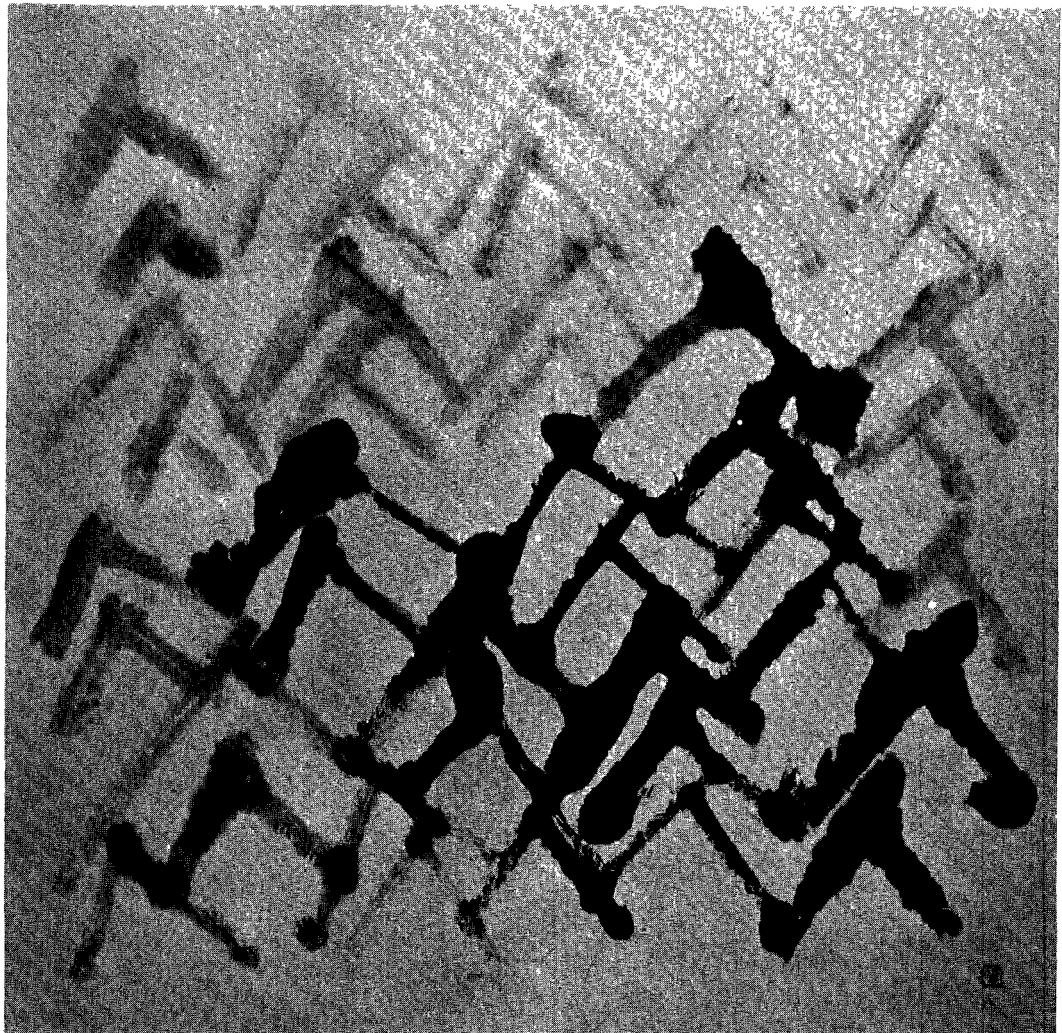
사람〈수묵, 87.5cm×90.5cm〉 1985년 속



母子〈수묵, 75cm×80cm〉 1985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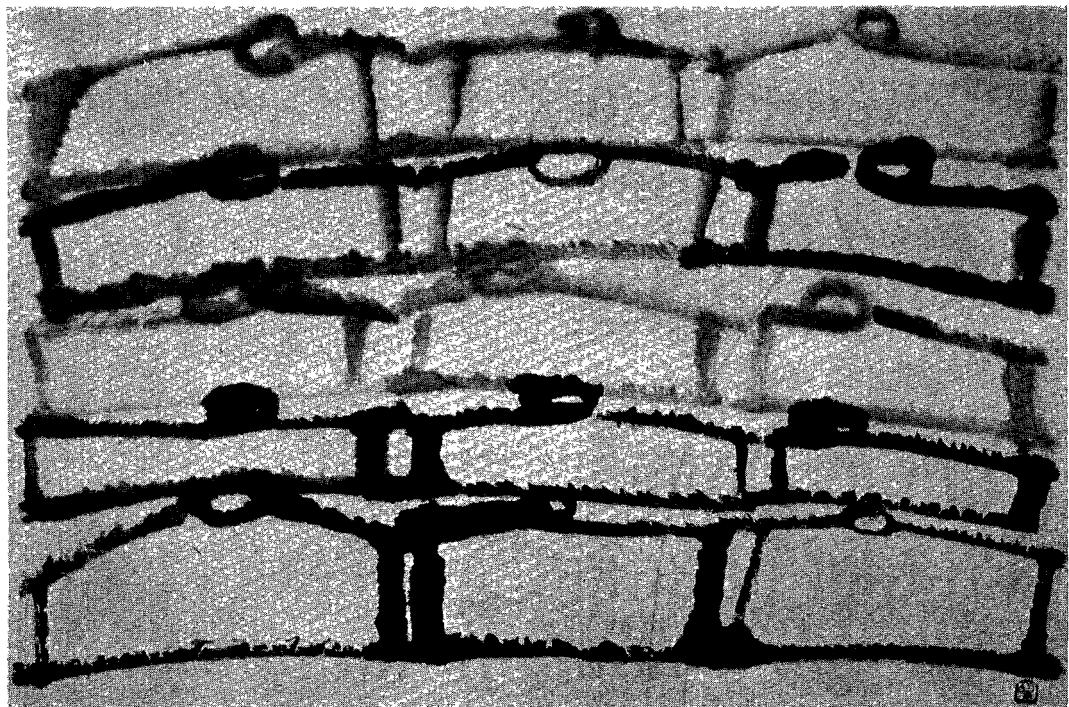
사람들<수묵, 114cm×1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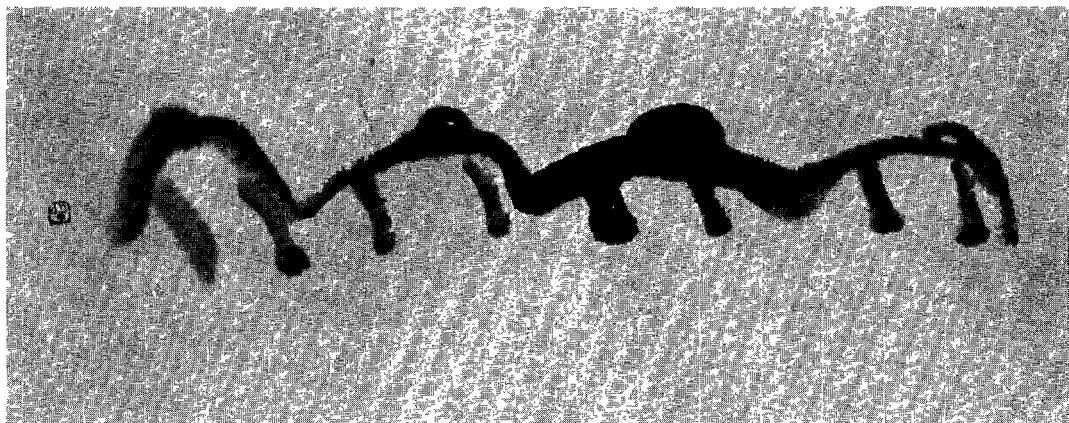
사람들<수묵, 96cm×95cm> 1986년 작



群舞<수묵, 76cm×60cm> 1987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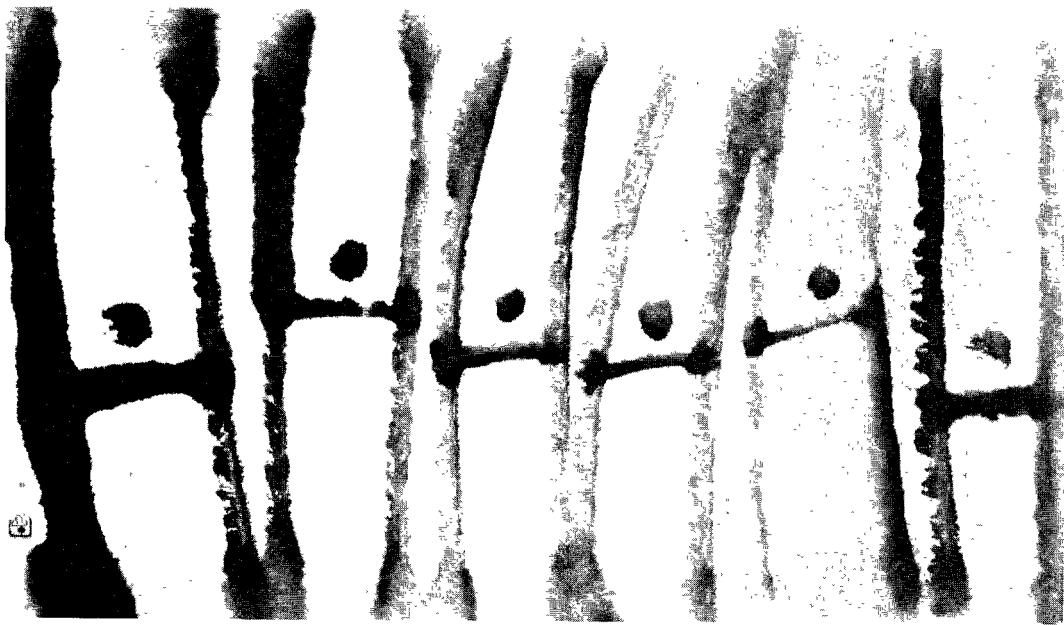
사람들<수목, 95. 5cm×62. 5cm> 1987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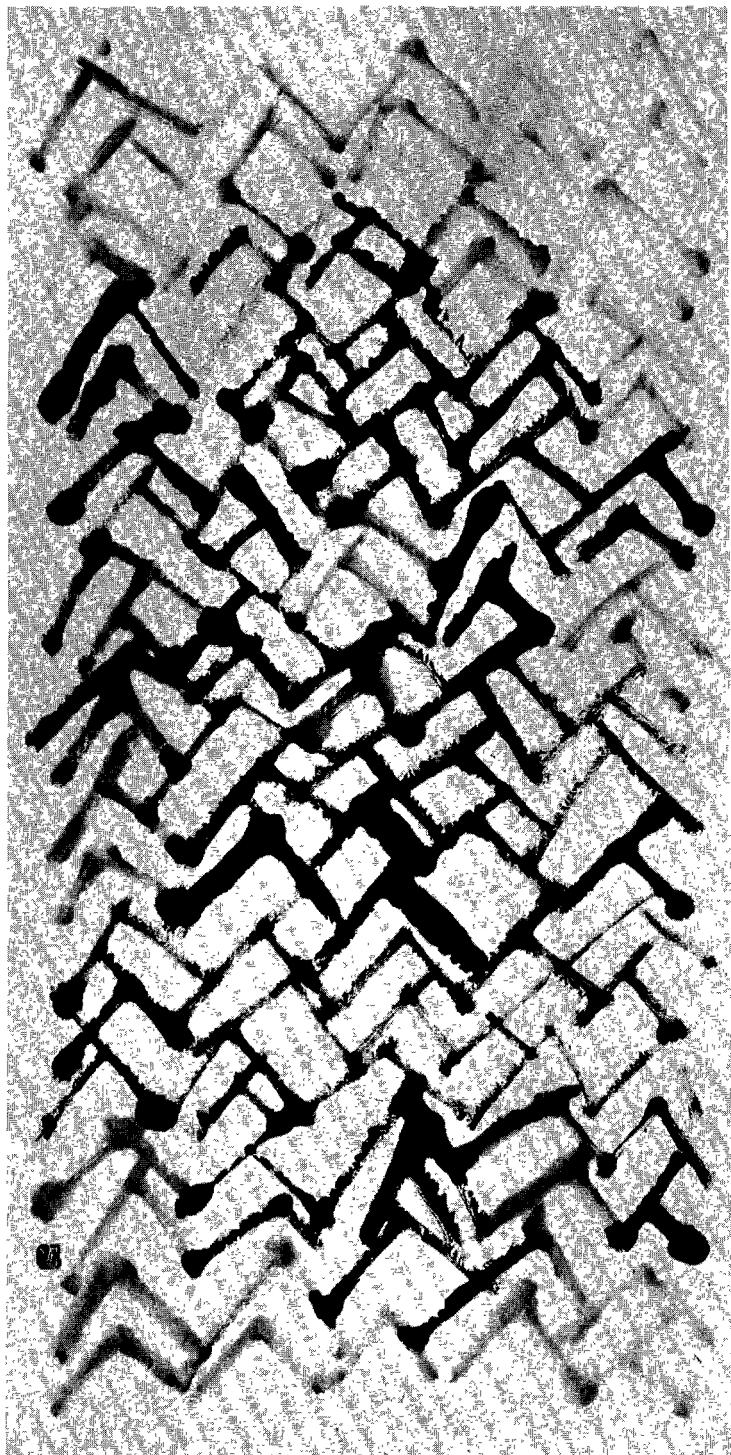
사람들<수목, 95cm×39cm> 1987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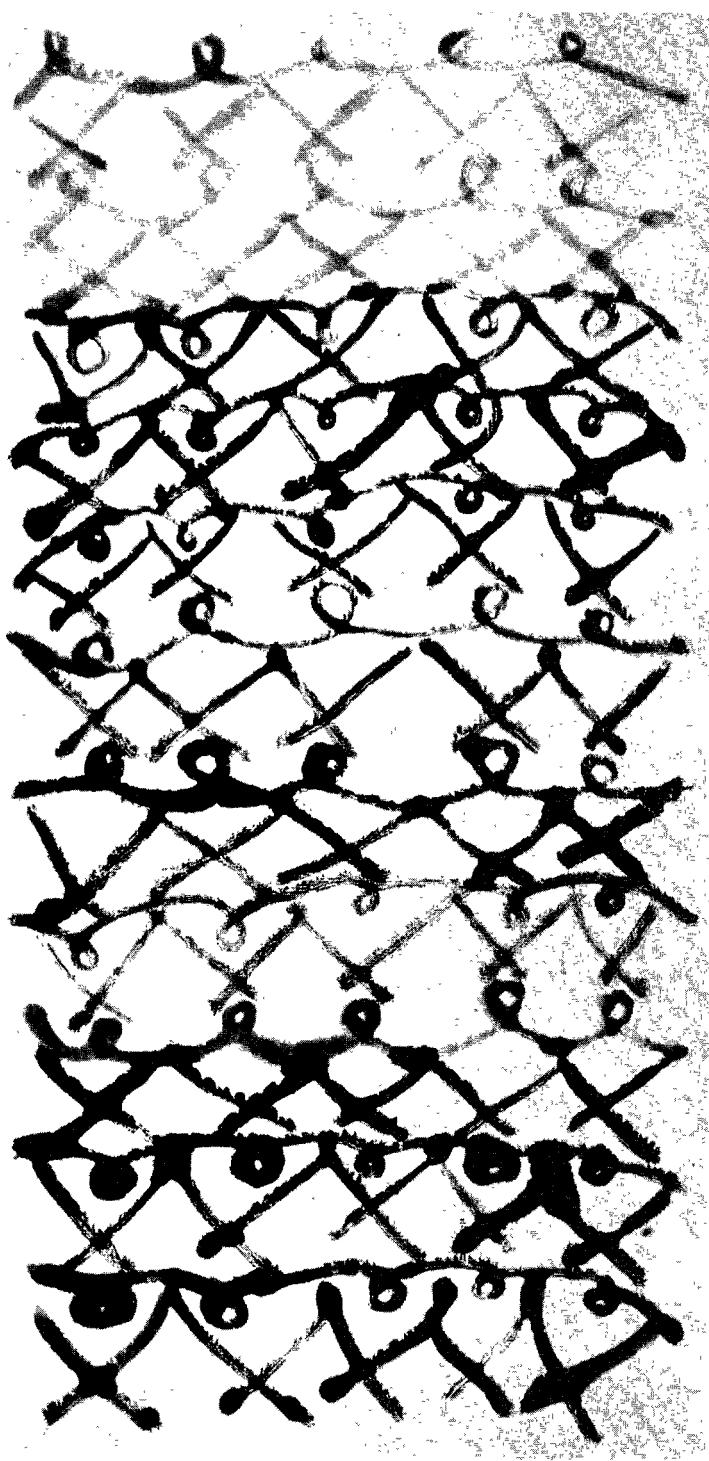
群舞<수묵, 95cm×61cm> 1987년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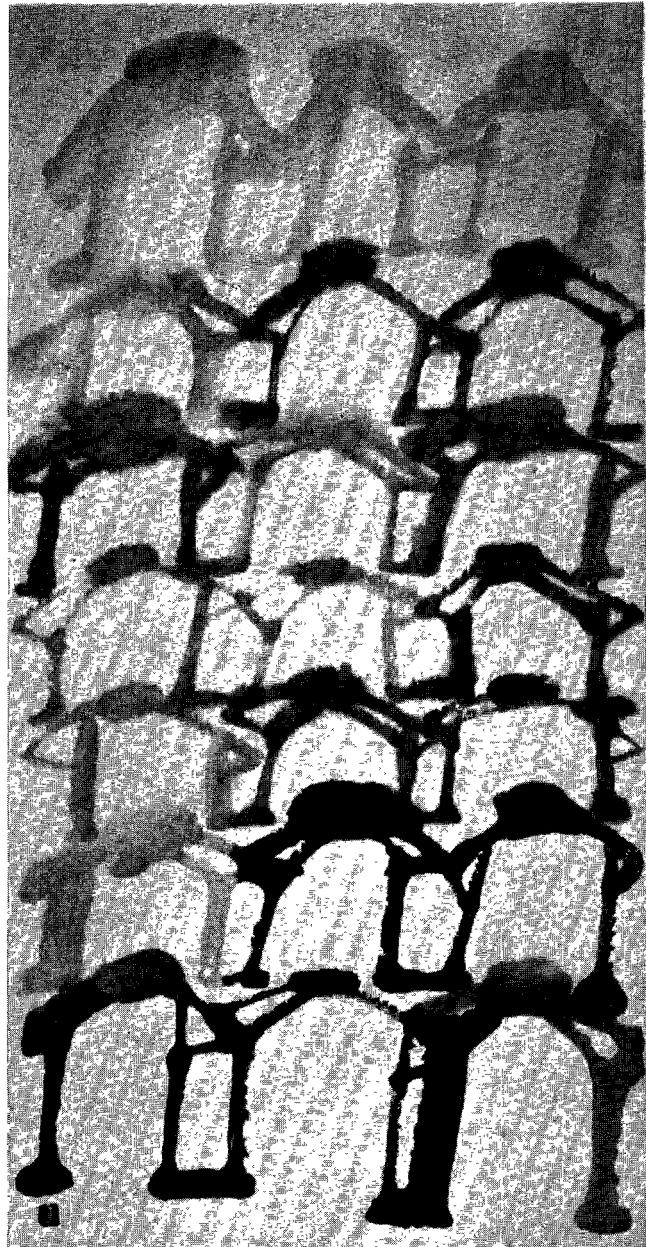
사람들<수묵, 94cm×54cm> 1987년작



사람들<수묵, 136.5cm×91cm> 1984년 작



群舞<수묵, 186cm×94cm> 1986년작



사람들〈수묵, 135cm×91cm〉 1987년작